

#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15. 9. 17.

김 태 훈

# 행사진행순서

등 록	14:00~14:30
개 회 식	14:30~14:40
◆ 개회사: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주 제발 표	14:40~15:10
◆ 주 제: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	
◆ 발표자: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	
휴 식	15:10~15:20
토 론	15:20~17:20
◆ 좌 장: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이사)	
사공용 (서강대학교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송광현 (한국쌀가공협회 전무)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이범락 (삼안 RPC 대표)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형준 (WFP 한국사무소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최상희 (농수축산신문 부국장)	
폐 회	17:20~17:30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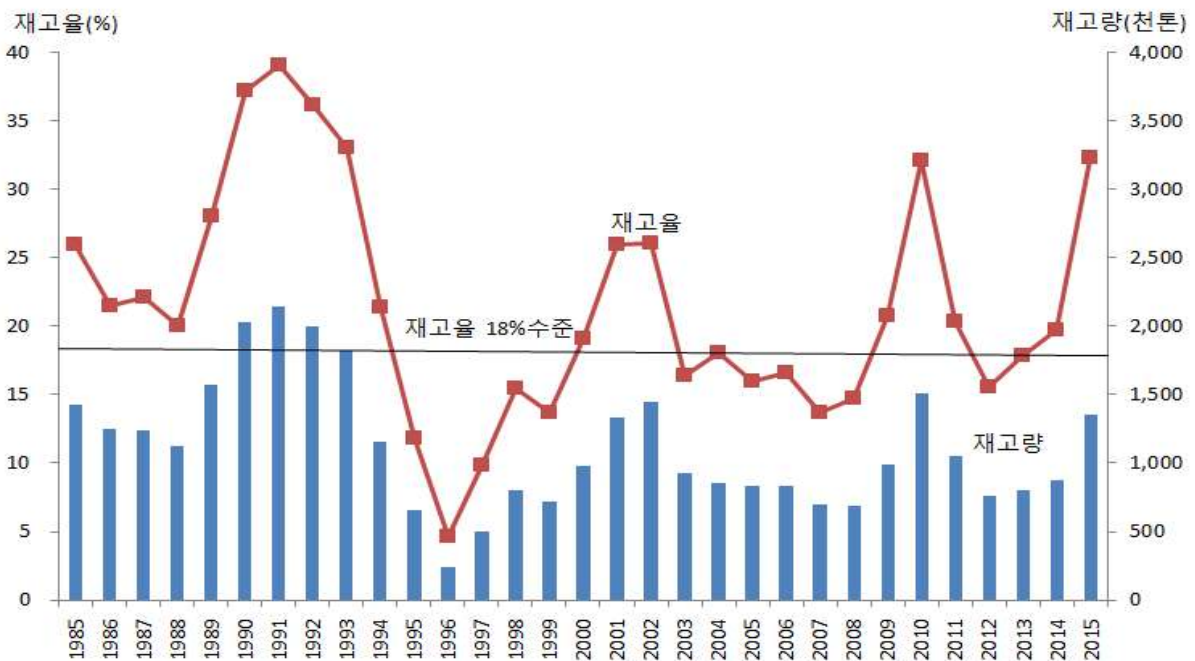
1. 쌀 재고 현황 .....	1
2. 쌀 재고누증 원인과 문제점 .....	3
2.1. 쌀 재고누증 원인 .....	3
2.2. 쌀 과잉재고 문제점 .....	6
3. 쌀 재고처리방안 검토 .....	8
3.1. 주정/가공용 .....	8
3.2. 사료용 .....	10
3.3. 사회복지용 .....	11
3.4. 해외원조 .....	12
3.5. 대북지원 .....	14
4. 요약 및 제언 .....	16

# 1 | 쌀 재고 현황

## □ 쌀 재고량 8~10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

- 1991 양곡연도말 쌀 재고량은 214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996년 24만 톤으로 사상 최저수준이었음
  - 2010 양곡연도 재고과잉이후 5년 만에 다시 재고누증 문제가 발생하여 재고 증감주기가 짧아 짐
- 1990년대 초 재고증가는 풍작이 주요 요인이며 1990년 이후 면적과 단수감소로 생산이 빠르게 감소하여 재고 감소
- 2000년대 초 재고증가는 1996년부터 증산정책에 따라 면적과 단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연간 40만 톤의 대북지원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재고량이 급감
- 2010년 전후 과잉재고는 2009년 사상최대 풍작(534kg/10a) 등 단수증가에 기인 하며 이후 작황부진과 가공용 등 재고방출로 재고가 감소

그림 1. 연도별 재고량과 재고율 변화 추이



자료: 양정자료

## □ 2015 양곡연도 쌀 재고량 크게 늘어

- 지난 2년 연속 풍작으로 2015 양곡연도 말 쌀 재고량은 130만 톤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
  - 2013년산 단수가 평년단수(495kg/10a)보다 14kg 증가하였으며 2014년산은 520kg/10a로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의 풍작 기록
  - 2014 양곡연도말 재고량 87만 4천 톤에서 2015양곡연도 말에는 135만 2천 톤으로 47만 8천 톤 증가
- 2015 양곡연도말 쌀 재고율은 32%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적정재고율 17~18%(공공비축 규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sup>1)</sup>
- 2015년 7월 현재 재고량 중 2013년산과 2014년산이 약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내산 재고비중은 61.4%이며 수입쌀 재고는 51만 3천 톤임

표 1. 쌀 재고량(2015.7월 기준)

단위: 톤/정곡

구 분	국내쌀	수입쌀	합계
재고량 (비중)	814,835 (61.4%)	512,842 (38.6%)	1,327,677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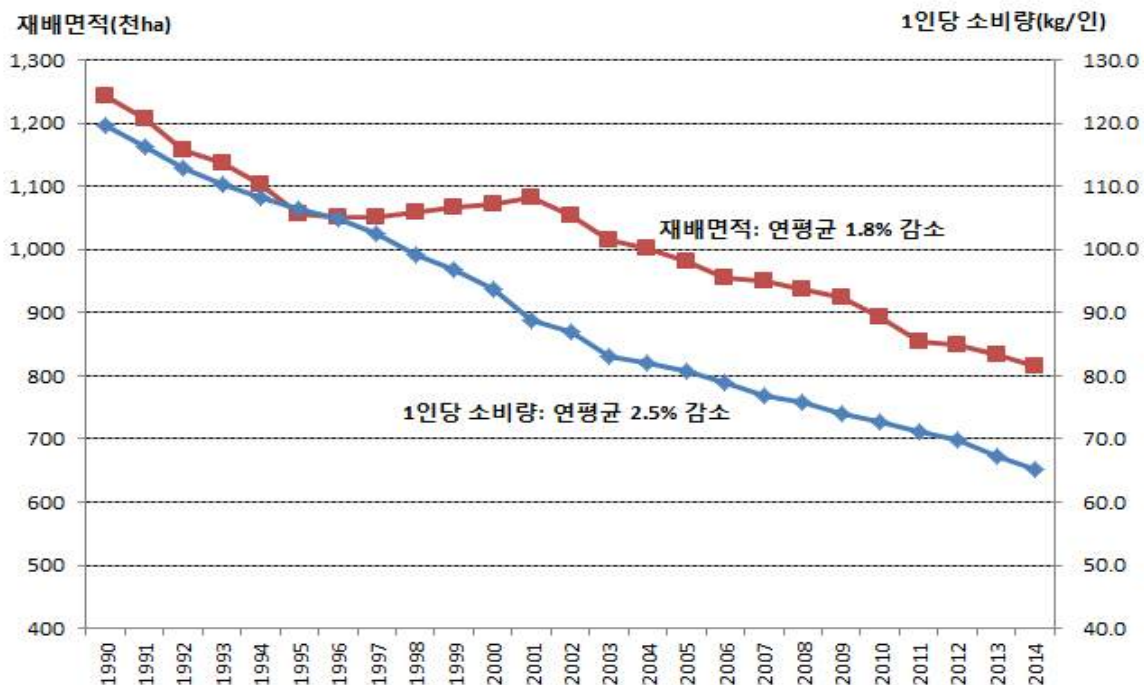
1) 2015~2017 양곡연도 공공비축규모는 국산쌀 43만 톤(식량용 소비량의 13%수준)을 목표로 운영하고 수입쌀을 합한 정부양곡재고는 총 쌀 소비량의 17~18%수준을 유지(201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10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2014.9.23.)

## 2.1. 쌀 재고 누증 원인

### □ 생산 감소보다 소비감소가 더 커서 매년 초과공급량 발생

- 1990년 이후 연평균 재배면적 감소율은 1.8%이나 1인당 소비량 감소율은 2.5%로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소비감소율이 더 큼
  - 동기간 쌀 생산량은 연평균 1.2% 감소하였으며 식용소비량은 1.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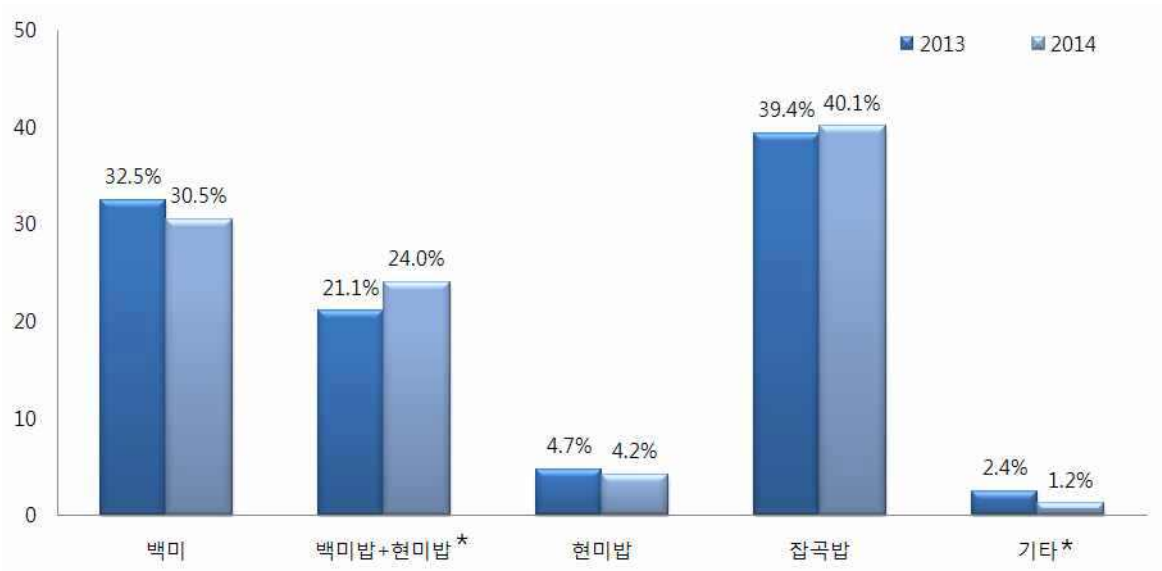
그림 2. 1인당 쌀 소비와 재배면적 변동추이



자료: 양정자료

- 쌀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서구식 식생활과 건강식 지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기 때문
  -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결과(2014)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중 40.1%는 잡곡밥을 소비하고 있으며 순수 백미밥은 30.5%, 백미와 현미 혼합밥은 24.0%로 나타남
  - 2013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백미와 현미의 혼합밥 소비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순수 백미밥 소비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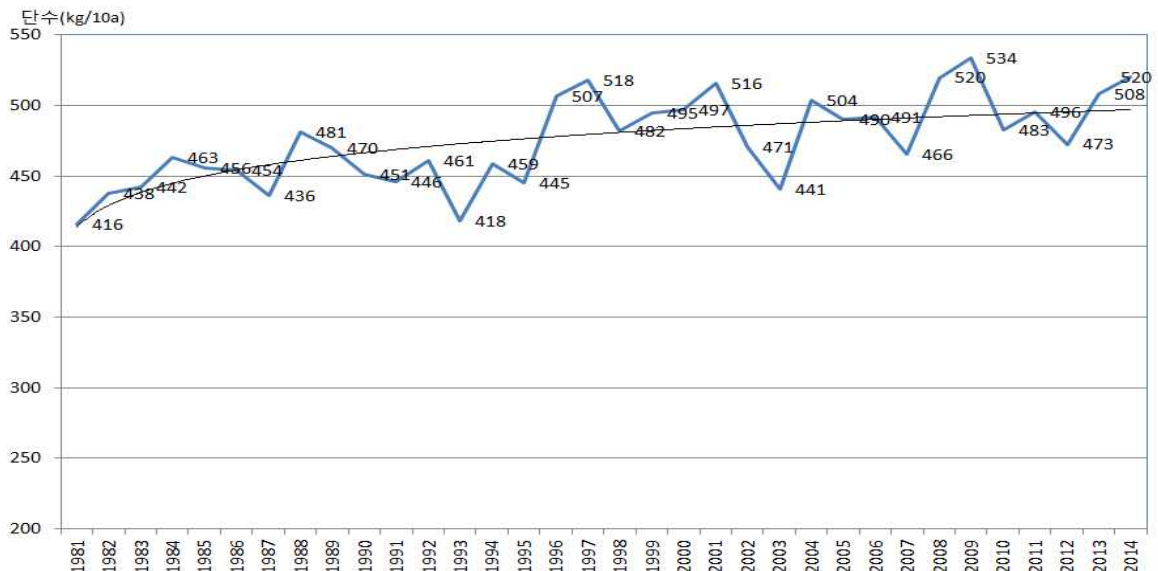
그림 3. 형태별 밥 소비실태



자료: 이계임 외(2014),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쌀 단수 증가로 인해 생산감소가 둔화
  - 최근 10년간('05~'14)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01%감소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도 전년대비 2.0% 내외로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 유지
  - 반면, 쌀 단수는 증가추세이며 특히 1996년 전후 확연한 차이
  - 이는 1990년 초 단수감소로 생산이 감소하자 500kg 이상 양질의 다수확계 품종보급을 1993년 10%내외에서 1997년 57%까지 확대하였기 때문

그림 4. 쌀 단수 변화 추이



자료: 양정자료

- 연도별 초과공급된 물량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 쌀 생산량과 밥쌀용 수입량에서 식량소비량을 차감하여 초과공급량을 산출하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96만 톤으로 추정됨
  - 정부의 가공용 쌀 공급이 수급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민간 가공만을 추가하여 계산할 경우 연평균 75만 톤이 초과공급되는 것으로 보임
  - 국내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하여 공급량을 계산하고 소비량은 모든 용도별 소비량을 더하여 계산하면 연평균 36만 톤이 공급과잉으로 추정

표 2. 연도별 쌀 초과공급량 산출

단위: 만 톤

	(생산+밥쌀수입) -식량소비	(생산+밥쌀수입) -(식량+민간가공)	(생산+수입)- (식량용+가공용)	(생산+수입)-(식량용+가공용 +종자+수출+감모(7.5%))
2005	119	109	105	67
2006	93	82	77	43
2007	93	81	71	42
2008	70	52	47	15
2009	122	108	105	68
2010	132	114	100	72
2011	78	57	46	21
2012	80	61	47	23
2013	76	53	57	12
2014	94	69	62	29
평균	96	75	68	36

주: 쌀 수급표에서 감모량은 통계불일치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율을 생산량의 7.5%를 적용함. 박동규(2011)의 연구에서는 쌀 수확단계에서 유통과정까지 발생가능한 감모량을 생산량의 7~8%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이것의 평균인 7.5%를 감모율로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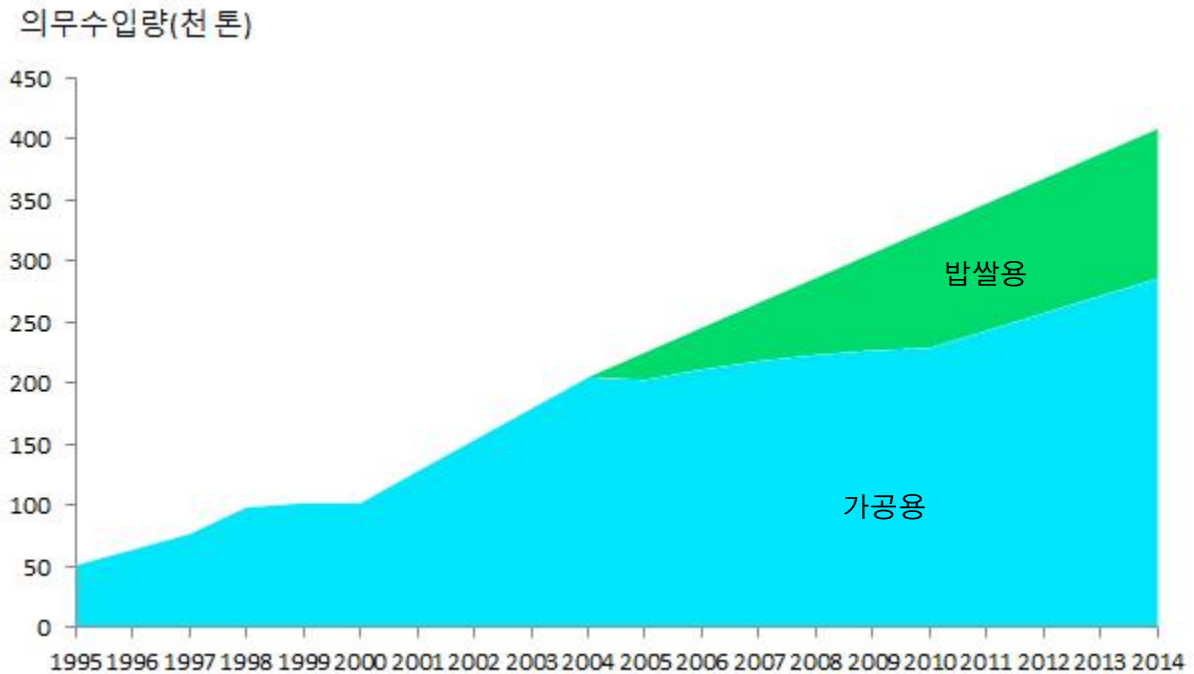
## □ 관세화 유예 대가로 증량한 의무수입물량도 쌀 재고부담으로 작용

- UR협정이후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도입한 의무수입량은 1995년 5만1천 톤에서 2014년 40만 9천 톤으로 증가함
  -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의무수입량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 10%에서 2014년에는 30%인 12만 3천 톤을 수입



- 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은 재고 누증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함
  - 2014년까지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수입쌀 재고도 계속 증가함
  - 수입쌀 재고는 2010년 이후 20~30만 톤 수준이었으며 2014년, 2015년은 50만 톤 내외 수준

그림 5. 쌀 의무수입물량 변화 추이



주: 물량은 도입계획물량 기준이며 실제 수입량은 협정의 국회비준, 회계연도와 양곡연도의 차이 등에 따라 도입 계획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양정자료

## 2.2. 쌀 과잉재고의 문제점

### □ 쌀 가격에 부정적 영향

- 쌀 재고량이 많으면 정부 방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산지거래 위축 가능성
  -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수확기 때 RPC 등 산지유통업체들이 원료곡을 매입하여 시장이 안정되는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면 소극적으로 매입

하여 산지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수확기에는 흉작(2010년산 단수 482kg/10a, 평년단수 498kg)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산지유통업체가 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았음

- 쌀 재고량이 1% 증가하면 가격은 0.1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표 3. 2010년 수확기 산지유통업체들의 수확기 벼 매입 실적

단위: 천 톤/정곡

구 분	2009년 실적	2010년			전년대비 증감률(%)
		계획량	실적	계획대비(%)	
농협RPC	996	1,036	886	85.5	-11.0
비RPC농협	482	560	485	86.6	0.6
민간RPC	511	613	389	63.5	-23.9
전체	1,989	2,209	1,760	79.7	-1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 재정부담 증가

- 쌀 재고 10만 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316억 원으로 추정
  - 10만 톤 당 보관료 61억 원, 고미화에 따른 가치하락 220억 원, 금융비용 35억 원 소요 예상<sup>2)</sup>
  - 재고증가는 수확기 가격이 하락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재고관리비용은 보관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식량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활용도가 줄어 가치가 크게 감소
  -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처리할 경우 10만 톤당 1,569억~1,690억 원 소요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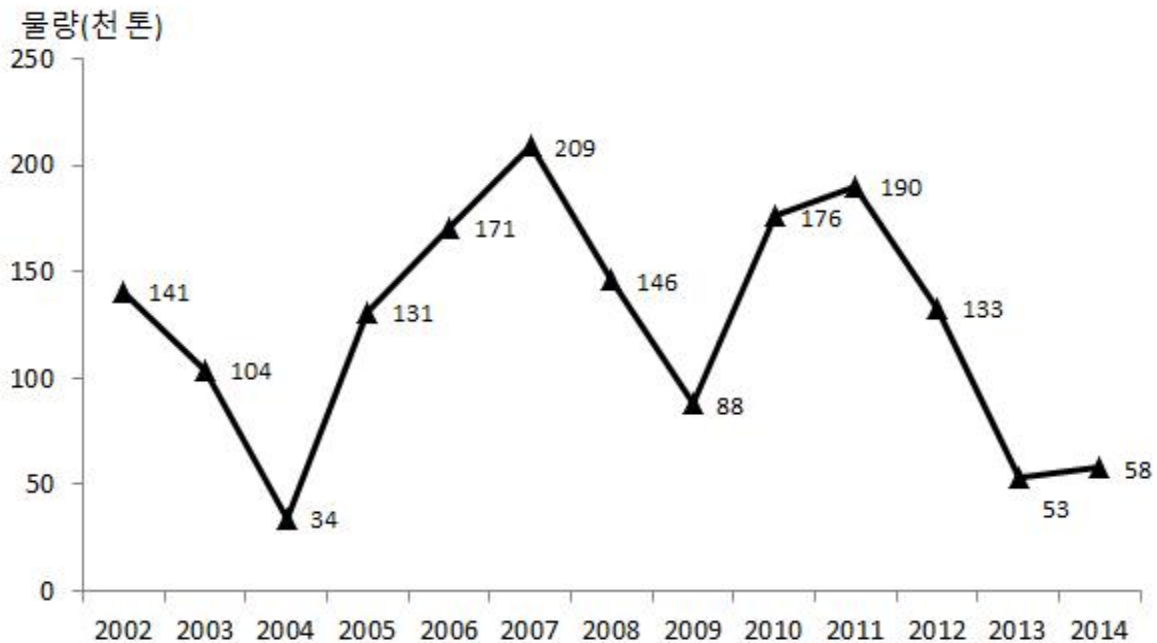
2) 보관료는 2014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를 참고(1급 을지)하였으며 가치하락은 연산별 정부 쌀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금융비용은 시장금리(국고채 3년) 1.78%를 적용함.

### 3.1. 주정/가공용

#### □ 현재도 주정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사용 가능물량은 많지 않아

- 주정용으로 쌀을 공급할 경우 고미이면서 물량이 많은 2012년산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만 톤당 1,690억 원의 판매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2012년산 정부 판매가격은 1,761원/kg이나 대체원료인 타피오카 수입가격(194원/kg)공급하는 것으로 가정
  - 가공임, 상하차료 등 국내조작비가 10만 톤당 1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만 톤당 총 1,690억 원의 손실 발생
- 최근 주정용 쌀은 5~6만 톤 내외로 매년 공급되었으나 금년에는 수급관리를 위해 주정용 공급을 크게 확대 함

그림 6. 주정용 쌀 정부공급량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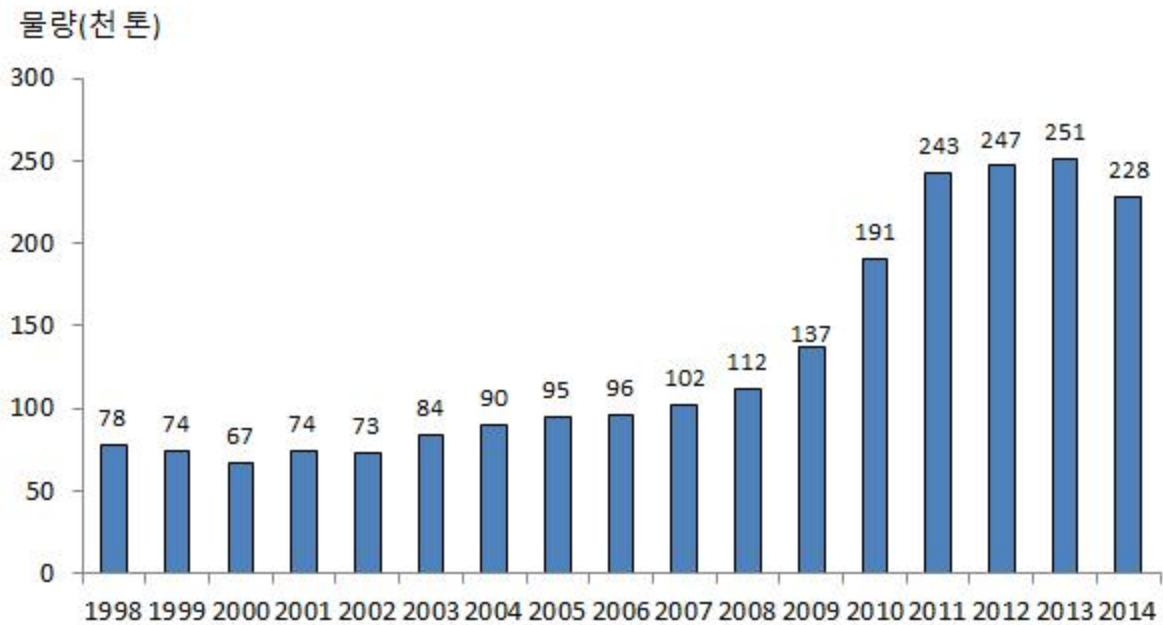
자료: 양정자료

-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연간 약 20만 톤으로 금년도 수용가능물량이 거의 채워져 사실상 여력이 없는 상태

## □ 일반가공용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체계 마련 필요

- 2013년산을 일반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10만 톤당 1,444억 원의 판매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판매원가는 10만 톤당 1,981억 원이지만 수입쌀 판매가격에 공급(670억 원)하고 부대비용 133억 원이 소요되어 총 1,444억의 손실 발생예상
- 10만 톤 내외수준을 유지하던 일반가공용 쌀 정부공급량은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쌀 재고가 크게 늘어나서 공급을 확대하였기 때문

그림 7. 일반가공용 쌀 정부공급추이



자료: 양정자료

- 수급조절목적의 일시적 가공용 원료공급으로는 쌀 가공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쌀 가공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공급가능하여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

## 3.2. 사료용

### □ 쌀의 사료용 가치는 높지 않아

- 사료용은 고미이면서 물량이 많은 2012년산을 대상으로 하면 10만 톤당 1,569억 원의 판매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정부판매원가는 10만 톤당 1,761억 원이지만 사료용 옥수수 수입단가로 공급 (279억 원)하고 가공임, 상하차료 등 부대비용 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어 총 1,569억 원의 손실 발생 예상
- 쌀의 사료용 이용은 옥수수 및 밀의 대체원료로 사용가능하나 사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음
  - 사료적 가치를 결정하는 조지방 및 조섬유의 함량이 대체원료들보다 낮음
  - 쌀의 사료적 가치는 옥수수 대비 80~85% 수준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앞서 추정한 판매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

표 4. 사료원료별 일반성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가용무질소	열량 (Kcal/g)
옥수수	12.93	8.02	3.29	3.37	1.15	71.05	3,944
밀	12.95	12.95	1.07	2.61	1.72	68.80	3,879
미분(米粉)	11.07	8.44	0.39	0.23	1.02	78.85	-

자료: 사료협회 내부자료

- 쌀의 사료용 수요는 공급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배합사료의 기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 사용 비율 5%를 적용하면<sup>3)</sup> 연간 약 50만 톤 수준임

### □ 쌀의 사료용 이용은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어

- 2010년 쌀 재고 과잉시기에도 쌀의 사료용 활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주식인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실현되지 못함
  - 하지만 일본의 경우 사료용 쌀 재배뿐만 아니라 생산된 쌀을 사료로 사용한 경험이 있음

3) 연간 사료용 옥수수 사용량은 1,000만 톤 수준으로 5%를 적용하면 50만 톤임.

### 3.3. 사회복지용

#### □ 사회복지용 쌀 지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50% 할인하여 공급하나 수요가 점차 감소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으로 공급
  - 농식품부가 시장가격에 도정하여 공급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의 50%를 부담하고 수급대상자가 나머지 50%를 부담
- 2014년산 정부판매원가는 10만 톤당 2,201억 원이나 50%할인된 가격 공급하고 (1,101억 원), 가공료, 운임 등 부대비용 132억 원을 적용하면 총 1,233억 원의 판매손실 발생
- 최근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쌀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대상자가 쌀 대신 대체식품을 선호하여 신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 따라서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지원을 통한 재고처리는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관련예산 제약으로 단기적으로 크게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

표 5. 사회복지용 쌀 공급 현황

단위: 천 톤/정곡

	2011	2012	2013	2014
사회복지용 합계	89	93	95	87
- 기초생활 및 차상위	86	84	84	74
- 무료급식	3	9	11	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3.4. 해외원조

#### □ 해외원조는 대상국 혹은 국제기구와의 협의시간과 재고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 해외원조는 민간자선단체를 통하거나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그리고 정부가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있음
-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원조를 할 경우 2,432억 원의 판매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산 판매원가는 10만 톤당 2,201억 원이지만 무상공급과 국내조작비 132억 원, 국외운송비 43억 원, 국제기구 간접비 56억 원 등 부대비용으로 231억원이 소요되어 총 2,432억 원의 판매손실 발생 예상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은 지원전 수혜국과 지원조건 등은 협의 후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협의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지원물품이 수혜국에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됨
  - 대부분 빈곤 국가들이 밀이나 장립종 쌀을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
- 정부간 협의를 통한 지원은 이해국 관계국과의 협의와 농산물 처리소위원회(CSD: Consultative Committee on Surplus Disposal)의 통보가 필요
  - 주요 쌀 수출국의 이의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과거 해외원조 추진시 쌀 관세화 유예상황,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등 국민정서 문제와 다른 대책보다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해외원조에 관한 국제 규정〉

### WTO 농업협정문: 수출보조약속 우회의 금지(10조 4항)

4. 국제식량원조 공여국인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 국제식량원조의 제공이 수혜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한다.
  - 금전화된 양국간의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식량원조 거래는 적절한 경우 통상 판매요건제도를 포함하여 식량농업기구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의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 이러한 원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이거나 1986년 식량원조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건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특혜적인 조건으로 제공된다.

### 세계농업기구(FAO)의 잉여 농산물 처리와 협의의무에 관한 원칙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 1954년 식량원조에 있어서 FAO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
- 잉여농산물을 국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 국제농산물교역이나 생산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
  - 식량원조국이 원조 요청을 받으면 계약의 체결 및 물품선적에 앞서 이를 수혜국에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제3국에게 통지하고 양자간 협의
  - 협의에서 원조국은 통상적시장수요량(Usual Marketing Requirement : UMR)을 제시
    - \* UMR이란 수혜국이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보장으로 원조협상시 원조국과 수혜국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 계약내용에 포함
  - 양자협의를 통해 제3국과의 이견이 조정되면 원조국은 월1회 개최되는 CSD에 이를 통보하고 다자간협상에 들어감.
  - CSD사무국은 원조에 관한 내용들을 모든 FAO 회원국 및 옵저버국가들에게 통보하고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

자료: FAO 한국협회



### 3.5. 대북지원

#### □ 2010년 이후 대북 식량지원 중단

- 국내산 쌀의 대북원조는 1995년 15만 톤으로 시작으로 2010년 5천 톤을 마지막으로 중단됨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40만 톤의 국내산 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2004년은 10만 톤), 지금까지 총 180만 5천 톤의 국내산 쌀이 북한에 지원됨
- 대부분의 대북 쌀 지원은 차관형태로 지원되었으며 무상지원 3차례 있었음

표 6. 대북 식량지원 실적

구분	지원실적 (만 톤)	남북협력 기금 (억 원)	지원방식	지원시기
1995	국내산 쌀 15	1,854	무상	95.6~10
2000	외국산 쌀 30 중국산 옥수수 20	1,057	차관	00.10~01.3
2002	국내산 쌀 40	1,510	차관	02.9~03.1
2003	국내산 쌀 40	1,510	차관	03.7~12
2004	국내산 쌀 10 외국산 쌀 20	1,359	차관	04.7~05.2
2005	국내산 쌀 40 외국산 쌀 10	1,787	차관	05.7~06.1
2006	국내산 쌀 10	394	무상	06.8~07.6
2007	국내산 쌀 15 외국산 쌀 25	1,505	차관	07.7~12
2010	국내산 쌀 0.5	32	무상	10.1
계	국내산 쌀 180.5 외국산 쌀 85 중국산 옥수수 20	11008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 단기적 재고처리에 효과적이거나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결정

- 2000년대 초 쌀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 국내산 쌀의 대북 지원이 늘어나면서 쌀 재고량 크게 감소
- 쌀의 대북지원은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이산가족상봉 논의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으며 분위기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대북지원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8. 대북 쌀 지원과 재고량 변동



자료: 양정자료

- 2014년산을 대북지원할 경우 판매결손은 10만 톤당 1,925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14년산 쌀 정부 판매원가는 10만 톤당 2,201억 원이나 국제쌀(장립종 기준 적용) 가격에 공급(456억 원)하고 국내 조작성비 163억 원과 대북운송비 17억 원 등 18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총 1,925억 원의 판매손실 예상

### □ 쌀 재고처리 비용은 사회복지용 지원이 가장 낮아

- 쌀 재고 처리비용은 사회복지용이 10만 톤당 1,233억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지원은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10만 톤당 2,432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료용과 주정용 처분은 상대적으로 고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판매 원가가 다른 처분방안에 비해 낮음
- 부대비용은 국외운송비와 국제기구 행정비 등이 포함된 해외지원이 가장 많고 사료용 처분이 가장 작음
- 공급가격은 판매가격의 50%에 공급하는 사회복지용 지원이 가장 높고 수입쌀 가격에 공급하는 일반가공용 공급가격이 두 번째로 높음

표 7. 쌀 재고처리 방안별 비용

단위: 억 원

	가공용		사료용	저소득층 지원	해외지원	대복지원
	주정용	일반가공용				
판매원가(A)	1,761	1,981	1,761	2,201	2,201	2,201
부대비용(B)	123	133	87	132	231	180
- 국외운송비					43	17
- 국내조작비	123	133	87	132	132	163
- 국제기구행정비 등					56	
공급가격(C)	194	670	279	1101	0	456
판매결손(A+B-C)	1,690	1,444	1,569	1,233	2,432	1,925

### □ 단기적 쌀 과잉재고 처리방안으로 사료용과 대복지원 고려 가능

- 현재 쌀 재고의 단기적 처리방안으로서 주식인 쌀의 사료용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나 약 50만 톤까지 사료용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쌀 대북지원은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 달려 있으며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대북 식량지원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 쌀 재고처리에 효과적임
- 주정용 처리는 20만 톤이 최대 처리가능물량이나 현재도 상당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금년에 추가 이용여력은 거의 없음
- 일반가공용도 연간 20만~25만 톤 정도의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추가 이용여력이 크지 않음
- 해외원조는 처리물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국제기구와의 협의, 수출국들의 이의제기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임
- 사회복지용 지원은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수급대상자가 쌀 대신 대체 식품을 선호하여 공급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 쌀 재고누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 필요

- 작황에 따라 적정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은 익년도 처분 원칙을 세울 필요
  - 풍작에 따른 일시적 생산과잉이 적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참여자가 예측가능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입
  - 초과생산되어 격리된 물량은 익년도에 가공용 등으로 처리하여 적정재고 수준 유지
-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와 노력 필요
  - 공급측면에서는 쌀 생산유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 쌀 소비촉진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MEMO

---